

특별리포트

김제교월동, 현장 통장회의 개최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박상문)는 지난 24일 관내에 소재한 김제제일 사회복지관(관장 김희곤, 이하 '제일사회복지관')에서 『찾아가는 통장회의』를 가졌다.

“찾아가는 통장회의”는 행정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통장님들에게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복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일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통장회의는 먼저 시장·동정 현안사항에 대한 전달을 마친 뒤 제일사회복지관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주민상호간 연대감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길 프로젝트-레인보우 콘서트' 및 '교동골 작은도서관' 등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되어 회의에 참석한 통장님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산파출소, 여성안심귀가 순찰

김제경찰서(서장 임상준), 금산파출소(소장 임진욱)에서는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야간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한 금산면을 만들기 위해 금산파출소 협력단체와 함께 여성안전 특별순찰 활동을 위한 간담회 실시와 함께 금산면 소재지에서 여성 안전 귀갓길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 및 합동 캠페인에는 금산면 여성이용소방대(대장 송정옥, 대원 20명)를 포함하여 금산면 의용소방대(대장 한호동, 대원 23명), 금산면자율방범대(대장 신은화, 대원 22명), 금산면생환안전협의회(회장 송영기, 회원 25명), 금산파출소 아동안전지킴이(김동화, 김금기) 등 금산파출소 협력단체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야간시간대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학생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여성들의 귀갓길에 동행하며 주민들과 상인들을 상대로 경찰의 여성안전 특별순찰 활동에 대한 홍보와 함께 주택가 골목길, 공폐가 시설 등에 대해 꼼꼼한 점검 활동을 펼쳤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음식폐기물 처리대책 마련

정읍시가 하절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하절기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음식물쓰레기 증가에 따른 수거지연 방지 ▲전용용기 관리강화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 당일 처리 등을 담고 있다.

시는 “특히 기온 상승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쉽게 부패해 악취와 해충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피서지 등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횟수를 늘리고, 배출거점 순회 수거로 소독을 실시하며,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류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수거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동처리반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 음식물 쓰레기 불편사항을 상시 접수하여 당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야채, 과일 등의 수분만 줄여도 많은 처리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줄이기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여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생기 시장과 박우정 고창군수, 김종규 부안군수는 지난 방송국 토론회에서 전북 서남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고창·부안 협력사업 강화

3개 지자체장 서남권추모공원 등 성과 평가·향후 협력방안 등 논의

정읍과 고창, 부안 3 시군이 앞으로 공동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생기 시장과 박우정 고창군수, 김종규 부안군수는 지난 22일 한 방송국 토론회 프로그램에 참석해 서남권협력사업의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에도 긴밀한 3시군 협력을 통해 전북서남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3시군 단체장은 이날 지난 2011년 '정읍·고창·부안 업무교류 협약'을 계기로 행정과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3시·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장은 “민선 5기 초 3시군은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이에 따른 성장동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역사적, 지리적 접근성이 밀접한 3시군이 상호협력하면 개별 지자체 추진에 따른 중복투자 및 행정력 낭비 방지는 물론 지역 자생력 교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업무협약을 갖고 이후 공동협력 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그간 성과와 관련 ▲인사교류 등을 통한 공무원들의 능력 향상과 자치단체간 협력강화 ▲서남권 시티 투어 운영을 통한 서남권 관광의 활성화 ▲서남권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등을 꼽은 3시군 단체장은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서남권 추모공원 개원을 꼽았다.

개별 지자체가 추진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완료 후에도 유지와 관리비 등에 따른 운영부담이 막대한 공동화장시설을 협력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이같은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는데다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김 시장은 특히 “서남권 추모공원은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재정을 투자한 최초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정부의 3.0사업에 아주 부합한 사업으로 평가 받아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3시군에 따르면 서남권 추모공원은 현재 화장로 3기에 1일 평균 10건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증가추세이다. 3시군은 9월까지 2기를 증설하여 모두 5기를 운영할 계획이고, 지난 4월 1일부터는 김제시도 화장장 사업에 공동참여하여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서남권 발전을 위한 전북연구개발 특구 공유방안도 모색했다.

정읍은 농생명융복합 거점지구(전주사업화 촉진지구, 완주 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로 특화돼 있는 만큼, 대부분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3시군 농업발전과 지역민 소득인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피력했다.

공유방안과 관련, 김 시장은 고창과 부안 관련 기업과 기관들이 3대 국책 연구소에 품질과 성분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서 연구소 실험장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중임을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 상호협력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복생활권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상동동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2014년 선정)', '베리 굿 소스육성 산업(2015년 선정)', '서남권 광역 응급의료진료체계 구축사업(2016년 선정)'의 성공적인 추진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지자체에서 공동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참여 요청 시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지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광역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여성단체협, 양성평등주간 앞두고 영화 관람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순애)는 지난 24일 지역의 여성 리더를 초청, 영화 '귀향' 관람을 통해 일제 강점기 여성 인권유린의 뼈저린 역사를 반추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영화 관람행사는 다가오는 양성평등주간을 앞두고 사회적인 관심과 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지역 여성리더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일제 강점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의 모진 고초를 생생히 담아 제작된 영화 '귀향' 관람행사에 참여한 여성들은 마지막 엔딩화면이 내려오는 순간까지 모두가 먹먹해진 가슴을 울려주며 숙연한 분위기속에 관람하였다.

관람을 마친 후에는 조촐한 다과시간을 마련, 전쟁의 화염속에 태워지는 처녀들에 대한 머릿속 아로 새겨진 영상을 서로 이야기하며 각자의 감동과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강순애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14년이라는 긴 제작기간과 수많은 후원자들의 협찬속에 탄생된 영화인 '귀향'을 지역 여성 리더들을 초청하여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초에 지자체 별로 시행하게 된다.

특히 김제시는 7월 8일 오후 2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성대히 개최할 계획으로, 유공자 표창과 양성평등헌장 낭독, 양성평등문화 확산 기획 퍼포먼스와 내태주 시인 초청특강과 가수 진성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김제시, 휴가철 자동차 무상점검 김제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와 함께 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부안군,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호응'

김종규 군수 특강·귀농귀촌 선진농가 견학 등 진행

부안군은 제2기 수도권 귀농학교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해나부가족호텔과 관내 귀농귀촌 선도농가 사업장을 방문하는 2박3일 일정으로 운영됐다.

제2기 귀농학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귀농귀촌 희망자 31명을 대상으로 정착 희망지역으로 초대해 현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하고 맞춤형 각종 정보 체계적 전달과 선도 귀농 성공사례 등 다양한 체험·견학을 통해 적응기회 및 희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귀농학교는 김종규 부안군수 특강과 귀농귀촌 설계 항목별 사례 설명, 귀농귀촌 선진농가 견학, 부안누에

타운 견학, 부안마실길 탐방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김종규 부안군수는 “부안은 생가부안과 오복 오감정책, 소통·공감·동행행정 등 찾아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고장”이라며 “6차 산업의 중심지와 새로운 비전의 땅 새만금의 도시 부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 선진농가 견학은 보안면 소재 '흙 농장'과 '버섯 천지' 농장을 현장 방문했으며 마을 기업 실증 연구 사례로 하서면 소재 '백련 농장'을 찾았다

/부안=이옥수 기자

풍물·태권도반 합동 워크숍

부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통 문화 체험으로 화합

부안군(군수 김종규)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운영 중인 다문화 어울림 문화교육 지원사업 “풍물반·태권도반 합동 워크숍을 실시했다.

지난 25일 “풍물반 태권도반 합동 워크숍”은 부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다문화 가족 부모 및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한국 민속촌에서 실시되었다.

문화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진 이날 워크숍은 어울림 태권도 교실 아동과 행복 풍물단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가 함께 참여하여 문화를 매개로 서로 협동하고 현재 배우고 있는 태권도와 풍물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전문문화 알리기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뤄졌다.

한국의 다양한 전통 문화 체험을

통해 문화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화합을 다지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서 휴식하며 문화감수성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문화 가족들은 태권도와 풍물에 대한 깊이 있는 애정을 느끼게 되었으며, 문화 교육지원사업의 참여도를 한층 더 향상하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워크숍에 참여한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에 시집와서 처음으로 한국의 전통 민속문화를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친정 나라와 비슷한 한국의 민속 문화를 보며 신기해 하기도 했으며, 풍물을 배우며 느꼈던 한국 민속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피서철을 앞두고 임시개통 되는 새만금전시관부터 변산면 변산교차로 구간(3.8km)에 대해 현장 점검을 했다.

부안경찰, 피서철 임시개통 구간 사전점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진)가 임시개통 되는 새만금전시관부터 변산면 변산교차로 구간(3.8km)에 대해 유관기관과 부안군, 익산국도관리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사전점검을 가졌다.

지난 23일 펼쳐진 사전점검은 임시개통 되는 구간의 제한속도 적정성 및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임시개통은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7

월 1일 새만금전시관~방포교 차로, 7월 15일 방포교 차로~변산교차로 구간을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며, 임시개통으로 인해 새만금전시관에서 변산해수욕장 구간의 정체 난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진 서장은 “교통사고 위험환경을 체계적으로 점검, 개선해 안전한 도로를 조성하고, 휴가철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소통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모약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의 시간이 진행됐다.

김제시, 기관단체장 모임 모약회 월례회의

김제시(모약회장 이진식)는 지난 24일 김제시 기관·사회단체장 월례회인 모약회를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모약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협조 요청, 새만금2호 방조제 관할권 확보 추진상황, 하절기 풍수해 대비 행동요령 및 감염병 관리·방역소독 사업 등에 대한 안내 등 시장현안 사항을 홍보하고 각 기관·사회단체장들과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년 6·25전쟁일을 맞아 김제시재향군인회에서 준비한 6.25 전쟁 참상 동영상을 시청하며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호국정신”을 다시금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앞으로도 김제시 모약회가 시장 주요 현안사업과 역점 시책사업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통해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여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